

한국해양학회 초기의 역사

한 상 복 /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장

우리나라의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한국해양학회는 현재 약 6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봄과 가을철에 정기적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5월 12~13일 인하대학에서 개최된 2000년도 춘계학술발표회에서는 2편의 특별강연과 9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각 지에서 모인 연구자들이 함께 어울려 이런 일, 저런 일 등을 얘기하는 기회를 가졌다. 현재의 한국해양학회는 1966년 7월 2일 창립되었는데 초기 회원중의 한사람으로 젊은이들이 알고 있어야 할 학회 초기의 역사를 1971년까지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최초의 해양학회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학회는

현재 한국해양학회의 맥과는 다르게 1959년 3월 27일 한국해양학회(The Korean Oceanographical Society) 창립총회가 서울 종로구 원남동 103 번지의 당시 중앙수산물검사소에서 있었다. 회장에는 정문기 당시 중앙수산물검사소장이 선출되었고, 부회장에는 서울대학교의 권영대, 최기철 교수가 선임되었으며, 임원으로는 이민재, 이종진, 정태영, 양원택 교수 등이 선출되었다. 정문기 회장은 1898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했으며 1929년 동경제국대학 농학부 수산과를 졸업하고, 1938년 8월부터 5년간 평북수산물시험장장, 1943년 8월부터 1년간 경기도수산물시험장장, 1944년 8월부터 1년간 전남수산물시험장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45년 12월 초대 중앙수산물시험장장으로 잠

시 재직했던 우리나라 수산학계의 개척자였다. 당시의 해양학회 임원진들을 보면 대부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들이고, 부산에 있는 중앙수산물시험장이나 부산수산물대에서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점이 이상하다. 그리고 1959년에 창립된 해양학회의 존재를 알려주는 연구발표회나 학회지의 발간이 없었기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로, 창립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었으며, 당시에는 학회지 발간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1950년대 후반은 유네스코에서 해양과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시기였고 각 국에서도 해양과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때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수산물시험장의 배동환은 1959년 1월 14~17일간 사이곤에서 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산하의 한국해양과학위원회로 하여금 국제해양조사사업인 CSK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1965년 8월부터 국립수산진흥원과 수로국에서 2월과 8월에 우리나라 근해의 정해진 선에서 1,000m까지 국제적인 수준에 달하는 해양조사를 수행할 준비를 하도록하여 담당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였다. 동해와 서해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담당하고, 남해만 수로국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수심 200m까지만 수행하던 해양조사가 1,000m까지 확장되었다. 서해와 남해는 수심이 200m 이내의 천해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동해에서는 1,000m까지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연구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린 유네스코 동남아시아 해양 과학 전문가회의에서 국제합동해양관측을 하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으며, 6.25사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근해 해양관측이 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뒷받침으로 정상적으로 복구되어 해방전과 같이 매월 정기적인 관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1960년 7월 11~16일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해양과학회의에 해무청 수산국장 지철근과 중앙수산검사소장 정문기를 참석시켰다. 이 회의 결과는 수석대표였던 지철근 수산국장이 1960년 8월 30일자 조선일보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정문기 해양학회장은 회의 참석이후에도 별다른 학회활동을 하지 않아서 정문기 중심의 해양학회는 창립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어서 잊혀져 버렸다. 196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출판한 UNESCO Korean Survey 라는 책의 690쪽에 1959년 창립된 한국해양학회의 내용이 간단히 나타날 뿐이므로 필자가 1970년 정문기, 권녕대, 이민재 교수 등 당시의 임원들에게 알아보았지만 창립 이후 아무런 활동이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구로시오 국제합동조사 참여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국제적인 해양과학연구 증진을 위하여 1960년 7월 코펜하겐에서 제1차 국제해양과학회의를 주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61년 10월 유네스코 산하에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배동환 이영철 박사가 참석하였다.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각 회원국에 IOC 가입을 독려하며, 회원국에 해양과학위원회의 설립을 주문하여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도 그 산하에 해양과학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1961년이다.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이미 1959년부터 인도양에서 국제적인 공동해양 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위한 산하기관이 필요했으며, 국제적으로 극한적인 냉전체제 속에서도 서로가 필요한 해양조사들이 있었으므로,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었으며 인도양의 공동해양조사사업은 1965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그 다음의 사업이 계획되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1962년 2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차 유네스코 동남아시아 해양과학 전문가회의에서는 구로시오 해역에 관한 공동조사를 채택하여 IOC 총회에 상정했으며, 1962년 9월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2차 IOC 총회에서 이것을 채택하였다. 이 때 한국대표로는 이민재 배동환 이영철 이석우 등이 참석하였다. 1962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APFIC, 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에서도 구로시오해역 국가의 공동해양조사 참여를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1963년 10월 29~31일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구로시오해역 해양과학 전문가회의(First Meeting of Marine Science Experts on the Kuroshio Region)에서 조사해역을 구체적으로 적도에서 북위 43도와 동경 160도로 둘러싸인 곳으로 정하여 제3차 IOC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1964년 7월 개최된 제3차 IOC 총회에서는 CSK 사업(Cooperative Study of the Kuroshio and Adjacent Regions) 수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각 해당 회원국에게 강력히 참여를 권고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산하의 한국해양과학위원회로 하

여금 국제해양조사사업인 CSK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1965년 8월부터 국립수산진흥원과 수로국에서 2월과 8월에 우리나라 근해의 정해진 선에서 1,000m까지 국제적인 수준에 달하는 해양조사를 수행할 준비를 하도록하여 담당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였다. 동해와 서해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담당하고, 남해만 수로국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수심 200m까지만 수행하던 해양조사가 1,000m 까지 확장되었다. 서해와 남해는 수심이 200m 이내의 천해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동해에서는 1,000m까지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연구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1965년 2월 8~11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차 CSK 국제조정관회의(First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Group for the Cooperative Study of the Kuroshio and Adjacent Regions)에서 일본, 한국, 소련, 미국, 대만, 필리핀, 홍콩 등 7개 참여국 대표들이 매년 2회 이상 공동으로 책임해역을 동시에 관측을 시작하고, 방법을 통일하도록 합의했으며, 한국의 국가조정관은 국립수산진흥원 해양조

사과장 한희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8월에 국립수산진흥원의 북한산호가 동해관측을 담당하고, 계림호가 서해를, 수로국의 제1수로호가 남해관측을 담당해서 CSK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협력기관으로는 국립중앙관상대, 부산수산대학, 원자력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등이고, 후원기관으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해양과학위원회가 적극 협력하였다. 그리하여 1965년 11월 개최된 제4차 IOC 총회와 제2차 CSK 국제조정관회의에서 우리도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보일 수 있게 되었다.

해양과학 심포지엄과 해양학회의 창립

CSK 사업이 유네스코의 주관사업으로 1965년부터 정기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한국의 해양학 발전에 노력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61년 산하의 특별위원회로 한국해양과학위원회를 구성했고, 1965년 12월 16~18일에 구로시오 조사를 위한 제1회 해양과학 심포지엄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해양과학위원회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부산 영도 소재의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있었으며, 한희수, 이석우, 허종수, 최상, 홍순우, 유광일 등이 발표하였다. 해양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하니까 자연히 해양학회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재정적인 지원이었다. 여기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흔쾌히 해양학회가 자립할 때까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커다란 업적의 하나로 여길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1966년 6월 30일~7월 2일에 제2회 해양과학 심포지엄이 부산의 국립수산진흥원과 부산수산대학 해운대 임해연구소에서 개최되었으며 발표자는 최상·정태화, 한희수, 이석우, 이병돈, 한관수, 김종수 등이었다.

한국해양학회(The Oceanological Society of Korea)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해양과학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회 해양과학 심포지엄의 마지막날인 1966년 7월 2일 부산수산대학 해운대 임해연구소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회장에 이병돈, 부회장에 최상을 선출하였다. 한국해양학회에서는 1966년 12월 20일 한국해양학회지 제1권을 발행했으며

박길호, 이석우, 최상 등의 논문과, 제2회 해양과학 심포지엄 기록, 회원명부 등을 회보로 실었는데 학회지 발간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창립회원의 분포는 국립수산진흥원 35명, 부산수산대학 10명, 수로국 7명, 국립지질조사소 5명 등으로 총 70명중 절반이 국립수산진흥원 소속이었으며, 국립수산진흥원은 해양과학 심포지엄 때마다 장소를 제공하고 점심 식사 대접을 하는 등으로 협력하였다.

제3회 해양과학 심포지엄은 1967년 8월 2~5일 국립수산진흥원과 부산수산대학 임해연구소에서 개최되었는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해양과학위원회, 한국해양학회 공동주최로 되었다. 즉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재정으로 심포지엄이 개최되는데 한국해양과학위원회와 한국해양학회가 끼워 넣어진 것이다. 발표자는 원창훈, 한희수, 강제원, 엄규백, 이창기, 박주석, 강용주, 김진면, 최상, 이석우, 김종수 등이었다. 심포지엄의 마지막 날 오후인 1967년 8월 4일 14시 20분에 해양학회 제2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회장에 최상, 부회장에 이병돈을 선출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부장 원창훈은 한국해양

학회의 창립과 거기에 따르는 재정지원을 전적으로 도와 준 분으로 해양학회에서는 그의 공로를 잊을 수 없다. 제4회 해양과학 심포지엄은 1968년 3월 20~23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주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해양과학위원회, 한국해양학회 등이었다. 발표자는 최상, 이석우, 이창기, 한희수, 공영, 허종수, 박주석, 홍성운, 정부관·김용문·김용술, 주우일 등이었는데 호노롤루에서 개최되는 제1차 CSK 심포지엄 발표를 위한 리허설이었다. 그러므로 1968년에는 해양학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1968년 3월 31일 당시의 학회 회원은 총 105명으로, 국립수산진흥원 37명, 부산수산대 14명, 수로국 11명, 서울대 10명, 국립지질조사소 6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제5회 해양과학 심포지엄은 1969년 7월 14~16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주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해양과학위원회 한국해양학회였다. 발표자로는 공영, 장선덕, 김봉안, 유성규, 임기봉, 최위경, 원종훈, 박상운, 최상, 김종수, 한상복, 임두병, 전상근, 이해관, 추교승 등이었다. 제3회 한국해양학

회 정기총회는 7월 16일 있었는데 회장에 최상, 부회장에 이병돈이 선출되었다. 제6회 해양과학 심포지엄도 1970년 7월 1~4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공영, 임주열·이미자, 허종수, 박주석, 김남장, 동형일, 최상, 김훈수, 장선덕, 원종훈, 강제원·원종훈·전세규, 원종훈·박길순·김성문, 정성호, 강영철, 한상복, 이석우, 이해관, 전상근, 김형기, 유광일, 고관서, 김종수, 박춘호, 박청길, 이삼석 등이 발표를 하였다. 1970년 8월에 CSK 제6차년도 제2차 조사를 끝으로 CSK 국제공동조사가 완료되었으며, 1970년 9월 동경에서 해양학 국제학술 심포지엄(The Ocean World)이 열렸고, 이어서 10월에는 제2차 CSK 심포지엄이 열렸다.

제7회 해양과학 심포지엄은 1971년 7월 12~15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해양과학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을 겸한 행사였다. 발표자는 F. A. Richards, 공영, 장선덕, 지이동, 장지원, 김승우, 최상, 임기봉, 한상복, 이창기, 황진풍, 이응호, 서영수 등이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해양과학위원회, 한국해양학회가 공동

으로 주최하는 마지막 심포지엄이기도 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1965년 이후 7년간 7회에 걸쳐서 해양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966년 한국해양학회를 창립했으며 학회지 발간까지 보조하여 해양학회의 자립을 도왔다.

1972년부터는 한국해양학회 단독으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1974년부터 춘계와 추계로 연 2회 연구발표로 발전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 7회의 해양과학 심포지엄 발표자들은 한국해양학회 초기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신 분들에 속한다. 이 때에는 해양학회 사무실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있었고 학회의 총무간사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부 이해관이 다년간 봉사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국해양학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립의 주동이었고 1971년까지 학회의 자립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해양학회 초기 회원의 한 사람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참고로 제2회 해양과학 심포지엄부터는 발표자의 제목과 요약문이 휘보 형식으로 한국해양학회지에 수록되어 있음을 알린다.㉔



1972년부터는 한국해양학회 단독으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1974년부터 춘계와 추계로 연 2회 연구발표로 발전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 7회의 해양과학 심포지엄 발표자들은 한국해양학회 초기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신 분들에 속한다. 이 때에는 해양학회 사무실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있었고 학회의 총무간사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부 이해관이 다년간 봉사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국해양학회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립의 주동이었고 1971년까지 학회의 자립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